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사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은 또 하루를 살아갈 작은 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리웁니다.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처럼 성경보고, 기도하고, 목장에서 양들과 뒹굴며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중세 수도사처럼 세상을 등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백수의 왕자가 사자라고 하나 우리 앞에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삼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흔히 간사함의 대명사로 여우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속이고 걸고넘어지는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동반자입니다. 오늘도 이들과 뒹굴며 살다가 하나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잠시나마 마음놓고 쉬고 싶어서입니다.

예전에는 옴의 고통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는 이런 기대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위선을 부추겨 바리새인 흉내를 내게도 합니다. 누군가 웃자고 지어낸 말인 줄 압니다만 "그곳(교회)에 가면 그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니고,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다"는 말, 그냥 넘기기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실감나게 꼬집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후 디베라 호수로 고기 잡으러간 베드로를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세상 속으로 숨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작은 사랑의 불씨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관심과 위로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소망의 불씨를 지퍼줄 부드러운 목사님의 손길입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기 전에 지친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작은 격려입니다.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촛불을▶ 신호대기시 운전자 초,중,고급
 【초급】오직 신호등만 본다. 눈도 한 번 안 깜빡거리구. 핸들은 꼬옥 쥘 채... 손에 땀이 흥건하도록...
 【중급】신호대기 시간이 점점 지루해진다.
 【고급】어? 유리창에 뭐가 묻었네? 밖에 나가 닦아야지..신호대기 시간이 이렇게 유용할 줄은...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 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3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9월 15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홍수도 못이긴 농부의 마음



"임진강 농장이 또 고립됐습니다."

다급한 무선 연락을 받은 경기도 소방본부 소방항공대 신주희 대장과 이세형 기장은 장대비 속을 뚫고 또다시 헬기를 이륙시킨 후 임진강변의 농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흉탄물을 따라 소와 돼지들이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빗속에서 아련히 보이는 농장의 건물 옥상에는 농장 인부와 피서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열한 명 가량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곡예비행을 서너차례 시도한 끝에 이들을 겨우 안전한 지역으로 후송시킨 신대장은 마지막으로 남은 환갑이 되어 보이는 한 농민과 입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기의 엔진소리와 프로펠러가 돌아가는소리 때문에 두사람은 거의 목청이 터질 정도로 고향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무슨 소리여, 나는 안갈테니 당신들일랑 빨리 가시오!"

"고집 피우지 마시고 빨리 타십시오. 이러시면 안됩니다."

할아버지는 신대장의 말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듯, 선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농장 건물 3층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약속하십시오. 절대로 나오면 안됩니다. 아시겠지요?"

하는 수 없이 신대장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뒤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빨리 가요. 난 괜찮아요."

농토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한 농민의 고집을 꺾지 못한 신대장이 혼자 헬기에 오르자 헬기는 바람을 일으키며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헬기가 떠난 자리에 농부는 홀로 남아 옥상 난간을 붙잡고 마치 기도나 하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오래오래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꾸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없으면 그냥 살아라
 꾸는 인생은
 뒤로 후퇴하는 인생으로
 전략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자의 화장과 옷차림에
 반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반하라
 너도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7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7(시 121)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 송 Hymn	478 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4: 15-24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천국은(2)?'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90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 조용권 집사 가족, 2절: 다같이)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9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1	김영길	권용일	윤형권, 신영화	김경숙, 이재영	송영철, 윤형권
8	박일영	김경숙	박상옥, 이금선	김동숙, 양경배	이재영, 임성광
15	김순자	김영길	이재영, 김경숙	김미애, 조용권	전병주, 정관영
22	최재학	박병민	박병민, 이기중	김순자, 정덕수	정덕수, 최득수
29	이재영	신경화	권용일, 이지영	노은숙, 최재학	최재학, 권용일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풀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이번 주말은 '추석'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며/서성이는 깊은 밤.
반백의 머리를 쓰다듬는/부드러운 달빛의 손길.
모든 것을 용서하는 넉넉한 얼굴/아, 추석이구나」
-유자효의 '추석' 중에서-

1. 등록하심을 함께 환영합니다
*김덕준, 서현선 성도, 민재 (7구역)
☎479-3569 ☎ 38 Penzance Rd. Mairangi Bay
*김인원, 차인애 집사, (1구역)
☎416-7060 ☎ 153 B West Harbour Dr. West Harbour.
2. 교우소식
*남형진 성도,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가족들은 12월에 귀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 수재를 당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
*이번 고국에서 당한 태풍피해는 유사 이래 가장 큰 피해였습니다. 200여명의 사망과 수조원의 재산피해...우리교회에서도 미약하나마 고국의 아픔에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2,000). 혹시 다니시던 교향의 교회가 태풍 피해를 입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4. 안수집사 기도모임: 화요일 저녁 7:30
제2남선교회(예고): 다음주일 예배 후
5. 추석가정예배: 추석을 맞아 부모님과 가정을 위한 예배를 드릴 성도께서는 배부된 예배문을 사용하여 드리실 수 있습니다.

◀추석날에 추억하는 아버지▶ 아버지 날 키우실 때는

아버지 날 키우실 때는 하루에도 몇번씩 가파른 산을 넘으시고 그 비탈진 산밭에서 종일토록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버지 날 키우실 때는 얼마나 많은 짐을 지셨는지 사시사철 무거운 리어카를 끌었고 차가운 부뚜막에 식은밥 드셨습니다

아버지 날 키우실 때는 날마다 활일이 태산 같으시더니 이제 늙고 병드시니 나, 해 드릴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날 키우실 때는 원할때마다 쏟아지던 수돗물같은 사랑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 수도꼭지처럼 아버지... 당신의 삶을 비틀었을까요

그 시절 밤마다 품속에서 꺼내주시던 건빵속에는 처럼 희고 달콤했던 별사랑도 있었건만 나,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날 어떻게 키우셨는지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